

아웃도어 배낭은 짐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OUTDOOR & TREND

| 아웃도어 배낭의 진화

등판 따로, 본체 따로…힙색으로 분리 간편한 수납 위해 최첨단 기술 동원도 캐리어·의자 변신 기능성 배낭도 인기 카메라 수납 특화한 ‘포토배낭’도 눈길

가을은 등산의 계절이다. 가을 산을 올라 본 사람은 안다. 반나절의 짧은 산행일지라도, 등산객은 산에서 사계절을 만날 수 있다. 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이는가 하면, 그늘에서는 바람 한 줄이 등의 땀을 순식간에 씻어버리기도 한다. 발밑에 서걱서걱 밟히는 밤송이들을 보면 ‘가을이구나’ 싶어진다.

등산의 필수품인 배낭. “이렇게 큰 배낭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가도 막상 이것저것 담다 보면 금세 배낭이 가득 차게 된다. 넉넉한 듯 싶어도 늘 모자란 게 배낭이다.

요즘은 배낭도 진화하고 있다. 그저 큼직한 수납공간에 불과하던 배낭이 툭툭 튀는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에 힘입어 보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효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배낭이야? 캐리어야? 배낭 겸 캐리어 ‘티엘에어’

노스페이스의 ‘비테’ 시리즈는 초경량 테크니컬 배낭이다. 20·25·39L 제품(12~15만원)이 나와 있다. 자매품인 비테 힙백(8만원)도 있다. 어깨 끈의 탈부착이 가능해 여러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다. 어깨 끈을 연결하면 백팩이 되고, 하리에 두르면 힙백으로 변신한다.

블랙야크의 ‘티엘에어’(25만원)는 배낭은 물론 여행용 캐리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21.5인치 스몰 사이즈로 비행기를 탈 때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메고 있다가 평지에서는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센터폴의 ‘스프린츠’ 배낭(11만9000원)은 28L 사이즈의 초경량 트레킹 배낭으로 당일 산행에 적합하다. 상단에 넓은 주머니를 달아 간식 등을 넣어두면 편리하다.

●등판이 따로 노는 ‘스위치36’·의자로 변신하는 ‘의자배낭’

밀레의 ‘스위치36’(17만5000원)은 중·단거리 산행에 적합한 36L 배낭으로 등판이 본체와 따로 노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배낭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등과 완벽하게 밀착된다. 프랑스 사모니 지역에서 필드테스트를 마친 제품이기도 하다.

K2의 ‘스파이더 배낭’ 시리즈(15만원대)는 한번의 동작으로 가방 문을 열고 빠르게 여닫을 수 있는 ‘다이렉트 어프로치’ 방식을 적용했다. 수납공간은 넓지만 열고 닫기



▲ 블랙야크 ‘티엘에어’

▲ 오프로드 ‘의자배낭’

▲ 컬럼비아 ‘매니악 데어 백팩’

‘다이렉트 어프로치’ 방식을 채택한 ‘스파이더 배낭’을 메고 있는 K2의 전속모델 현빈. ‘다이렉트 어프로치’ 방식은 입구를 열고 빠르게 여닫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큰 사진) 캐리어나 의자 겸용 배낭, 무릎 담요가 장착된 배낭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배낭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작은 사진 위로부터) 사진제공 | K2

어려운 후드형 배낭과 편리하지만 수납공간이 부족한 티어드랩형 배낭의 장점만을 취합했다.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의자배낭’(19만9000원)은 오프로드의 베스트셀러 배낭이다. 외부에 프레임이 달아 접이식 의자처럼 이용할 수 있다. 트레킹이나 낚시를 즐길 때에도 유용하다. 의자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 짐까지 줄여주는 기특한 배낭이다.

●1석 2조는 기본…1석 3조 배낭도 인기

역시 오프로드의 ‘블루리버 트랜스포머 백’(8만9000원)은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이 장기간 제품이다. 평소에는 힙백으로 휴대하다가 더 넓은 수납공간이 필요할 때 내장된

백을 펼치면 백팩으로 변신한다.

아이더의 ‘프린스턴’(18만원)은 하나의 가방으로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투웨이 백팩. 가방 상단의 앞주머니를 분리해 힙백으로 단독 활용할 수 있다.

1석 2조를 넘어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는 배낭도 있다. 컬럼비아의 ‘매니악 데어 백팩’(18만8000원)은 컬럼비아가 자랑하는 비주얼 보온 테크놀로지 ‘웜히트’가 적용된 무릎 담요가 구성품에 들어 있다. 백팩 하단의 포켓에는 보온·보냉 기능을 지닌 음료수 케이스도 내장돼 있다.

●포토타레킹족을 위한 ‘포토배낭’도 출시

넉넉한 용량이 필요하다면 네파의 ‘바이

오시넵스’(19만8000원)와 센터폴의 ‘라보’(19만9000원)가 있다. ‘바이오시넵스’는 40L가 기본용량이지만 필요에 따라 탈부착한 포켓이 달려 있다. 45L ‘라보’는 상하 분리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 마니아들을 위한 배낭도 있다. 코오롱스포츠의 포토배낭 ‘유닛’(14만5000원)은 내부에 파티션이 있어 소형 카메라를 수납하기 좋다. ‘포토타레킹 GRANDE 2013’(36만원)은 상단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와 렌즈 3개를 수납할 수 있다. 노스케이프의 ‘FJORD 시리즈 II’(7만9000원)는 포토타레킹을 위한 크로스백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



피사체를 10배 가까이 당겨 찍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LTE 스마트폰 ‘갤럭시S4 줌’.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디지털 카메라 부럽지 않은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광학 10배줌 탑재 스마트폰 갤럭시S4 줌이 세계 최초다

삼성, 고성능 카메라 기능 스마트폰 국내 출시

세계 최초로 광학 10배줌 카메라 기능을 갖춘 LTE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LTE 스마트폰 ‘갤럭시S4 줌’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갤럭시S4 줌’은 피사체를 더 가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학 10배줌을 지원하는 16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 제품을 이용해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고품질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일반 카메라와 동일한 촬영 버튼과 그림감을 제공해 아날로그 카메라를 조작하는 듯 한 직관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카메라 경통을 돌리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는 ‘줌 링’ 기능도 갖췄다.

이 밖에도 사진에 소리를 저장하는 ‘사운드 앤 샷’, 현장소에서 촬영한 다른 사진을 참고해 최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포토 서제스트’ 등 ‘갤럭시S4’의 카메라 기능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초고속 LTE 통신을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촬영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갤럭시S4 줌’은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상으로 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됐으며,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경제 브리핑

씨온, 맛집 앱 ‘식신 핫플레이스’ 무료로 출시

씨온은 사용자 경험 기반 리얼 맛집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식신 핫플레이스’를 출시했다. 리뷰 및 방문 횟수를 기반으로 지역 전문가를 선정해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씨온은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씨온’의 55만개의 장소에 쌓인 1억2000만 건의 체크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식신을 선정했다. 이용자들은 식신 앱을 이용해 지역 식신이 추천하는 리얼 맛집을 평가가 높은 순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사용자 리뷰 및 평점 정보, 음식점 상세정보, 동영상 정보 등도 제공한다. 식신 앱은 앱스토어와 T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내달 3일 열려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후원하는 세계적인 이색 장애물 통과 경기인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포스티)가 11월 3일 일산 한류월드 K-POP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현대인들이 극한의 장애물 통과 경기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경기이다. 정해진 루트를 달리는 마라톤이나 철인3종 경기와 달리 참가자들이 난관을 통과해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경기다. 이번 대회에 장애물 레벨은 스프린트(SPRINT), 슈퍼(SUPER), 비스트(BEAST), 울트라 비스트(ULTRA BEAST) 중 스프린트 레벨이다. 약 5km의 거리에 총 15개의 장애물물 이루어져 있다. 엘리트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르탄 레이스 전문 선수들이 내한해 국내의 마니아 선수들과 경기를 펼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서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리복 스파르탄 레이스 공식 사이트(kr-kr.spartanrace.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SpartanRace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스펙스 ‘김연아 캐주얼 기원’ 응원 배지 공모

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김연아 캐주얼 기원 응원배지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부상 치료 중인 ‘피겨퀸’ 김연아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까지 프로스펙스 공식 홈페이지(www.prospects.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1~23일 10개 후보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며 24일 최종 배지 디자인이 선정된다. 당선작은 ‘김연아 캐주얼 기원 YUNA14 배지’로 제작되어 김연아 선수에게 직접 전달된다. 1~4위에게는 ‘김연아 착장 폴카키’, ‘YUNA14 워킹화’ 등 상품을 지급한다.

엘프와 오크는 가라…도깨비와 구미호가 온다

주목 e게임 | NHN엔터 ‘아스타’

‘서양 판타지는 가라, 아시아 판타지 게임이 온다.’

NHN엔터테인먼트가 16일 공개서비스를 앞 둔 폴라곤게임즈의 ‘아스타’(사진)는 ‘아시아 판타지’라는 색다른 세계관으로 무장한 다중접속확장수행게임(MMORPG)이다. 게임 내 두 세력간의 전쟁을 핵심 콘텐츠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 환상적인 아시아의 판타지를 재현한 문화적 그래픽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문화적 아시아풍 그래픽

‘아스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설에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MMORPG 장르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도깨비나 구미호 같은 캐릭터가 돼 설화 속 신비로운 동물인 해태나 비렴(바람을 일으킨다는 상상

의 새)을 타고, 구안마괴, 저승사자, 허깨비 등과 싸우는 식이다.

기존 MMORPG에 등장하는 서양 판타지의 엘프나 오크, 드워프 같은 콘텐츠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다른 MMORPG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더욱 신비롭고 색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사인 폴라곤게임즈는 ‘아시아 판타지’라는 세계관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색 표현력이 풍부한 ‘크라이엔진3’를 사용했다. 상상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문화적 느낌을 보다 잘 살리기 위해 손으로 직접 그려낸 회화풍 그래픽을 구현한 점도 특징이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MMORPG가 다소 어려운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이 게임의 강점이다. 유저는 게임 내에서 ‘아수’와 ‘황천’이라는 두 진영의 여러 종족 중 하나를 선택

해 상대 진영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MMORPG 콘텐츠 중에서도 소수의 특수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를 위한 그룹간 전투(RvR)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10대 10 규모로 저레벨부터 참여 가능한 전투 콘텐츠 ‘격전’부터, 대형 필드에서 이뤄지는 ‘진영 간 전쟁’과 ‘공성전’까지 다양한 레벨대의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솔로 플레이만으로 캐릭터 성장이 가능하고, 능력 차별화를 통해 나만의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공개서비스에서는 18개의 맵과 18개의 인턴으로 40레벨까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최대 15대 15까지 가능한 전장인 ‘격전’ 등 전투 콘텐츠와 혈족 임무 던전, 일일 지역 레이드 등 ‘아스타’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